

일본 섬유 산업 연맹

- 2009년도 글로벌화 활동으로 기반 강화 방침 <3/3>

[7] 인재의 확보와 육성

(1) 필요한 인재의 확보와 육성

섬유 산업의 사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지 중소기업의 후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영자의 확보 및 육성과 현장에서의 높은 기술을 계승해 나가기 위한 OJT(On the Job Training : 職場内 訓練)의 충실이나 숙련 고령자(熟練 高齡者)의 채용 등 각 기업들이 책임지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기술사, 섬유 제품 품질 관리사 등 섬유 관련 자격 제도를 활용한 소재 개발 · 품질 관리의 프로 인재(professional 人材) 육성이나, 패션 산업 인재 육성 기구 : fashion 産業 人材 育成 機構 : IFI)의 교육을 활용한 머천다이저(merchandiser)나 디자이너(designer)를 육성하는 것도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일본 노동 인구가 줄어가고 있다는 사태를 주시하고 고령자나 여성 고용을 촉진하는 각종 제도를 확충하거나 해외로부터의 인재를 받아들이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섬유 산업의 전 업종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외국인 연수(研修) · 기능 실습 제도(技能 實習 制度)에 관하여는 2008년 9월부터 ‘섬유 산업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문제 검토회’를 내세워 활용의 실태와 적절하게 활용하게 하는 대책 등을 검토하고 있다. 2009년에도 활동을 계속하여 업계로서의 적절한 활용을 철저하게 함과 동시에 정부에 대하여 제도면을 확충할 것을 요구한다.

(2) 사람이 성장하는 환경의 정비

섬유 산업의 미래를 맡을 인재를 키우며, 또한 장래에도 우수한 인재를 섬유 산업에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섬유 산업에 장래성이 있으며, 사회에 유익하고 꿈이 있는 산업임을 널리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8] 세계 문제への 대응에 대하여

(1) 중소기업 대책 세제의 근본 강화

2009년도 세제 개정에 있어서, 사업 승계(承繼)에 관한 재산 평가를 근본적으로 경감(輕減)하고, 결손금(缺損金 : 赤字)을 차례로 정리 환부(整理 還付)로 부활, 법인세 경감 세율(法人稅 輕減 稅率)의 시한내 인하(時限內 引下) 등의 중요한 조치는 결정되었다. 앞으로는 이 조치에 관한 관련 법안을 확실히 성립하도록 요구한다.

① 중소기업이 스스로 체질을 개선하여 경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투자 촉진이 매우 중요하다. 이 조치의 대상 설비를 확대하고, 취득 가격 요건(取得 價格 要件)의 인하, 현행 20%로 되어 있는 세액 공제 상한(稅額 控除 上限)의 인상을 더욱 확충토록 한다.

② 연구 개발 촉진 세제(研究 開發 促進 稅制)의 연장 · 확충

연구 개발을 강화하는 것은 과학 기술 창조 입국(科學 技術 創造 立國)을 목표로 하는 일본의 장래에 중요하며, 특히 중소기업의 연구 개발 투자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도 2009년 개정으로 확충된 증가형(增加型) 또는 고수준형(高水準型)의 가산 조치(加算 措置)의 연장(延長) · 확충(擴充)을 요구한다.

(2) 법인 실효 세율의 인하

일본의 법인 실효 세율(法人 實效 稅率)은, 국제 경쟁력이 있는 여러 외국과 비교하여, 대체로 10% 높은 수준으로 되어 있다. 글로벌화 경제 사회 중에서, 여러 외국과의 국제 경쟁에 이길 수 있게 국제적으로 비슷한 수준까지 인하해 주기를 요구한다.

(3) 환경세 도입 반대

CO₂ 배출 삭감(排出 削減)은 중요하지만 환경세 도입(環境稅 導入)에 따른 경제 활동에 대한 검증(檢證)도 부족하다. 석유 · 석탄세(石油 · 石炭稅)가 부과되어 있는 화석 연료에 환경세라고 하여 이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강하게 반대한다.

[9] 국제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1) 제 4회 일중 섬유 산업 발전 · 협력 회의(日中 纖維 産業 發展 · 協力 會議)를 중국

에서 2009년 가을에 개최.

- (2) 제 3회 세계 4극 회의(世界 4極 會議)를 로마에서 4월에 개최.
- (3) 제 23차 일한 섬유산업 년차 합동 회의(日韓 纖維産業 年次 合同 會議)를 일본에서 개최.
- (4) 아세안 제국의 섬유 산업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 · 강화.
- (5) WTO의 도하 라운드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낸 구미(歐美)의 섬유 산업과의 연휴(連携) 강화.
- (6) 아시아 화섬업 연맹 등, 각종 섬유 업계 단체(各種 纖維 業界 團體)의 국제화에 적극적인 교섭 지원.♣